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더 이상 개혁을 방치하다가는 견장을 수 없는 국민 부담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국민 혈세가 퇴직 공무원 노후보장에 투입되는 데 대한 따가운 여론도 감안됐다.

더욱이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대한 형평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에 구체적 연금 개혁안을 마련,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혁방향에 대해서 아직 검토단계이나 그 원칙을 놓고는 이미 관련 부처내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 불가피한 선택? =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제정이 골칫거리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만도 6천9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적자폭이 매년 급증하는 데 있다. 2010년에는 2조7천932억원, 2015년 7조1천506억원, 2020년 13조8천126억원, 2040년 47조7천689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 같은 재정적자는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 혈세로 퇴직 공무원들 뒷바라지하라는 말이

■ 공무원 연금 개혁 배경과 전망

국민연금과 급여 형평성 맞추기

개혁 더 이상 미루면 국민부담 가중

기준 공무원 소급 적용은 어려울 듯

나”는 비판 여론이 팽배하다.

공무원연금의 이 같은 재정적자는 급여체계의 부조화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연금에 비해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대한 형평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에 구체적 연금 개혁안을 마련,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혁방향에 대해서 아직 검토단계이나 그 원칙을 놓고는 이미 관련 부처내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 불가피한 선택? =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제정이 골칫거리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만도 6천9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적자폭이 매년 급증하는 데 있다. 2010년에는 2조7천932억원, 2015년 7조1천506억원, 2020년 13조8천126억원, 2040년 47조7천689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 같은 재정적자는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 혈세로 퇴직 공무원들 뒷바라지하라는 말이

민들에게만 ‘양보’를 강요할 경우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게 정부내 분위기이다.

◇돌이킬 수 없는 개혁수준 돌입 = 정부 내에서 연내에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현 정부 임기내 개혁과정을 완결짓겠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의 선(先) 조치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국민공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연금도 함께 손을 대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안 어떤 내용 담을까 =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낮추는 쪽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는 개혁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시점이 아니다. 일단 모색과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해 당사자간 역학관계의 개입도 불가피할 것

구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연금액 산정기준	• 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 • 보수월액·과세표준의 70%	• 전 가입기간 평균소득 [전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전기가입 평균소득월액/2] • 소득월액·과세표준의 100%
급여수준	• 퇴직연금: 최대(33년이상 근무) 최종 3년 평균보수의 76% -20년까지는 50%, 그 이후는 1년당 2.0%씩 가산 • 유족연금: 퇴직연금x70%	• 노령연금: 40년 가입시 전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 -가입 1년당 1.5%씩 가산 • 유족연금: 노령연금x40%~60%
수급요건	• 퇴직연금: 20년이상 재직 • 장애연금: 공무원 장애시 • 유족연금: 재직기간 20년이상	• 노령연금: 10년이상 가입 • 장애연금: 가입기간 1월이상 • 유족연금: 가입기간 1월이상
지급방식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연금
연금지급 시기	• 60세부터 지급 단,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2년에 1세씩 60세	• 60세 도달시 지급 • 2013년 이후 상향조정하여 2033년 이후 65세부터 지급
연금액 조정	• 매년 물가상승률, 단 3년마다 정책 조정	• 소비자물가상승률(CPI) 기준

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2원 운용체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준용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은 퇴직연금 형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유시민 장관의 경우 ‘퇴직전 최근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76%’로 규정돼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급여기준

이 ‘상후하박’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이를 ‘가입기간 평균소득’ 등의 기준으로 교체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공무원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공무원들의 극심한 반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통4사 760억 과징금

불법 보조금...사상 최대 규모 부과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4사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등 이통4사에 대해 7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425억6천만원, KTF 119억5천만원, LG텔레콤 150억7천만원, KT재팬에 36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다.

통신위는 그러나 이통4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마케팅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처벌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정부출연연구 3곳 공동 신약 물질 개발

생명과학을 다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주요 정부출연 연구소 3곳이 공동으로 신약 물질 개발에 나선다.

KIST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한국화학연구원(화학연)은 2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을 위한 3개 출연(연)간 협력 합의서’ 조인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연구기관은 각자의 인력과 실험 장비 등을 통합해 공동 연구조직을 결성, 질환별 신약 물질을 개발한다. 구체적인 신약 연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기관 측 관계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한국, 세계 조선소 1~7위 독식

50대 조선소 수는 中·日에 뒤져

한국이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세계 조선소 1~7위까지 독식하고 있지만 세계 50대 조선소 수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인 영국의 클락슨(Clarkson)에 따르면 올해 5월말 수주잔량을 토대로 1~50위까지 조선소 순위를 매긴 결과 중국과 일본이 각각 15개사가 포진했고 한국은 9개사에 그쳤다.

한국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 한진중공업이 1~7위에 올랐지만 그 외에 신아조선(25위)과 성동조선(33위)만 50위권에 포함돼 슬산한 중소형 조선업체가 거의 없다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반면 중국은 대련조선과 외교조선이 각각 8,9위에 오른데 이어 후둥중후조선(15위), 뉴센트리조선(17위), 보하이조선(26위), 상하이 행시조선(31위) 등 중형급 조선소들이 줄을 이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보하이조선은 최근 대형 도크를 추가로 건조해 향후 초대형VLCC와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한국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증권사 작년순이익 9배 ↑

기부금 증가는 2배에 그쳐

지난해 증시 활황에 힘입어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9배 이상으로 급증했으나 기부금 증가는 이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2개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2개사의 2005사업연도(2005.4~2006.3) 당기순이익은 총 2조8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53.5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증권사들이 지난 한해 지출한 기부금은 총 158억 3천600만원으로 전년도의 52억6천800만원에 비해 200.59% 증가하는 데 그쳐 순이익 증가율에 크게 못 미쳤다.

이중 현대증권이 전년도 1억3천300만원에서 지난해 64억 2천만원으로 기부금 지출을 크게 늘려 4천718.09%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현대증권은 기부금 액수에 있어서도 22개 증권사 중 최상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한증권(1천266.39%), SK증권(797.93%), 한화증권(693.42%), 대신증권(457.18%) 순으로 전년 대비 기부금 증가율이 컸다. /연합뉴스

(주)루즈벨라, 광물질 ‘아우성 팬티’ 출시



(주)루즈벨라가 3년여 동안 경남대·경상대 등과 산학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의 광물질 정력판티인 ‘아우성 팬티’를 출시했다.

남성용은 고급원단에 내부 명황매쉬를 채용, 음낭주머니를 만들고 10개의 광물질 입자를 채워 고정시켰다. 이 광물질은 혈액순환 및 혈류개선 작용을 통해 힘을 키워주는 작용을 한다.

여성용은 신소재 광물질 입전 5개를 고정, 항균력과 탈취효과를 높였으며 원적외선 93%라는 경이적 방출량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억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판가격은 남성용 2장 1세트, 여성용 3장 1세트에 3만9천 원이다. 문의 호남지사 (062)672-0909.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여성취업자 55%가 임시·일용·무급직

통계청 5월 고용동향

여성취업자 중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용직·임시직·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 상용근로자는 262만1천명으로 1년 전인 작년 5월의 242만2천명보다 8.2% 늘었다. 이런 증가율은 같은 기간 남성 상용근로자 증가폭인 0.2%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여성취업자 중 일용직 근로자는 113만3천명, 임시근로자는 290만1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40만3천명으로 모두 543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임시·일용·무급직이 전체 여성취업자 989만6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9%에

달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 임시직은 1개월 이상~1년 미만, 상용직은 1년 이상인 경우이며 무급가족 종사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여성 자영업자는 지난 5월 150만 9천명에 이르렀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주와는 달리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형태여서 상당수가 노점상을 비롯한 생계형이다.

남성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는 122만1천명, 임시근로자는 229만1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5만8천명으로 모두 367만 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일용·임시·무급직의 경우 전체 취업자 1천358만8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0%로 여성보다 훨씬 낮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비치보석 산호보석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찾은 고객들이 26일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다양한 종류의 비치보석과 산호보석들을 착용해보고 있다. 초록비치, 황비치, 라벤다비치 등 자연을 닮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근소세 증가율 종소세의 2배

최근 5년간...조세형평 대책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세수실적에서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종합소득세 증가율보다 2배가 높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조세형평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성수 수석전

문위원 등은 26일 재경위에 제출한 ‘2005회계연도 재경위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 자영업자 소득과 과외 제고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5년 세입결산 결과 종소세 세수(4조6천700억원)는 분예산에 비해 11.5% 적은 반면 근로세 세수(10조3천822억원)는 8.8% 많고, 전년보다는 각각 각각 3.5%, 5.7%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실적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자영업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5년간 세수증가율을 보면 종소세는 17.4%에 그친 반면 근로세는 무려 35.2%로 2배나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코라운제과 광주팀	순회 진열 및 판촉역사원(주부사원가능)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6/28	062-952-0853
㈜한빛메디칼	정규직 병원 영업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9	062-262-3611
한글과 컴퓨터	컴퓨터 방방지도교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366-7220
㈜케이스	(주)케이스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30	062-236-1688
㈜대우엘렉트릭공장	[광주근무]재경팀 - 회계결산, 자금관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3-260-1413
벽송개발㈜	인테리어 디자이너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655-1010
㈜시랑방문고	광주 신세계 이미지 매장근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526-5194
㈜가평엔지니어링	업무/경리/도시계획/토목설계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375-7787
광고박사	광고웹디자인/광고영업/텔레마케팅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3	062-526-0127
풍일산업㈜	공정 자동화 설비, 보전, 공무 직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03	062-941-7891
도서출판 호산	맥 디자이너 실장급 및 경력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7/05	062-226-362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아파트 담보대출

대출금리 : **감정가의 80%까지**

대출금리 : **年 7%**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민기일시상환가능

정기예금 年 5.32%

M 무등저축은행

본점 : **반남읍·이행면**

T. (062) 223-5506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4-28-11(남대원동) 101호

/연합뉴스